"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정크아트 특별 전시 및 탄소중립 홍보관」 운영

□ 행사 개요

○ 기 간 : **2021. 6.3(목) ~ 7.11(일)**

○ 장 소 : 전주 팔복예술공장(공단 홍보관 운영 위치 : 그림 책방)

○ 주 최 : 전북환경운동연합·(재)전주문화재단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플랫폼C,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 개막식 및 크리스조던 사진전(전북환경운동연합, 플랫폼C)
- 탈플라스틱 사회 정크아트 특별전시(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 운영 프로그램 내용

- (전시) 크리스조던 사진전, 정크아트 수상작 특별전시
- (체험) 분리배출 농구 체험, 영화 '알바트로스' 상영
- (교육) 단체 학교 자원순환 환경교육, 예술공장 초록강좌, 그린 스케쳐스, 그린 포럼
-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식,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

< 공단 정크아트 특별전시 및 탄소중립 홍보관 운영내용 >

▸ 기간 및 장소 : '21.6.3. ~ 7.11, 팔복예술공장 그램책방

▸ 운영내용

-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18~ '20년) 정크아트 부문 10점 전시
- 탄소중립 350 실천 서약식,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
- 생생한 분리배출 농구 체험
- 크리스조던 사진전 연계 단체 관람객 공단 홍보관 체험

< 관련 사진 >



개막식



전주시장 등 개막식 참석자 인사



전환 사회로 가는 사다리 타기 : 지구를 위한 약속 - 사다리에 실천 항목 받아서 관련 말씀



정크아트 특별 전시 및 공단 탄소중립 홍보관 안내





전주 교육감 탄소중립 350 실천 서약 및 인증 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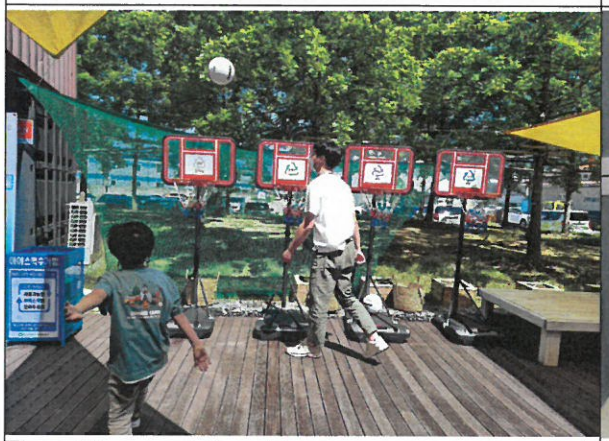
탄소중립 실천 서약 인증샷



정크아트 안내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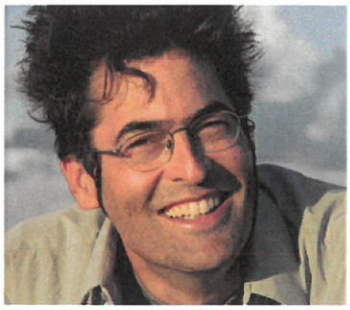
분리배출 농구대 체험



크리스 조던 사진전 감상

작 가 소 개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b. 1963~, 미국



현대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배면의 불편하기만 한 진실을 크리스 조던처럼 분명하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고 섬세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작가가 있을까. 사진과 개념미술, 영화와 비디오아트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크리스 조던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다.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그의 작품으로 들어오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사유하게 한다. 때로는 아주 친숙하고 흥미롭게, 하지만 감각의 깊은 곳을 깨우며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한다.

크리스 조던은 예술가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 록키 조던은 사진작가이자 콜렉터였고 어머니 수잔 엘리자베스 조던은 뛰어난 수채화가였다. 여동생 캐서린은 다큐멘터리감독이자 언론인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미술을 배운 이후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대학교와 텍사스 오스틴대학교에서 미국문학을 전공했다. 1991년에는 텍사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시애틀에서 1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3년에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예술가로서 흔치 않은 이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술감성으로 충만한 유년시절과 인문학적 사유를 넓힌 대학교에서의 학업은 그의 작업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사진가로서의 직관과 통찰력은 물론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로서의 면면이 그의 작업에서 씨줄과 날줄을 형성한다.

크리스 조던은 미국과 전 세계의 미술관, 화랑, 문화기관에서 100여 회가 넘는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졌다. 저서로,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Intolerable Beauty』, 『숫자로 본 미국인의 자화상 Running the Numbers. An American Self-Portrait』,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자리 In Katrina's Wake, Portraits of Loss from an Unnatural Disaster』, 『우시리키아노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Ushirikiano: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in Kenya's Northern Rangelands』 등이 있다. 그는 환경예술상으로 유명한 '시에라클럽 안셀 애덤스 상 the Sierra Club's Ansel Adams Award for Conservation Photography'(2010) 뿐만 아니라 'UN그린리프상 United Nation's Green Leaf Award'(2007)을 수상했고, '픽텍 심사 대상 Prix Pictet Commission Prize'(2011)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 유수의 공·사립 미술문화기관들에 소장되어 있다.

2018년, 크리스 조던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알바트로스Albatross>를 발표하였고, 이 영화로 '런던 세계보건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칠레 오지의 대자연에서 인류의 성찰을 담는 수년에 걸친 사진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 구성 및 주요 작품 소개

섹션 1) 떠나온 곳은 다르나 우리는 하나

첫 번째 섹션은 사실상 이번 전시의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현대판 티탄족의 위기를 그린 작가의 대표작들로 엮었다. 하지만 결코 비관으로 끝나지 않는다. 20세기 환경학의 최고의 고전인 레이첼 카슨의 책, <침묵의 봄>이 모티브가 되어 레베카 클락과 공동 작업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비롯해 아름다운 장미창을 형상화한 '만다라' 영상은 결국 인류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떠나온 곳은 다르나 인류는 하나"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전구(Light Bulbs), 100x133cm, Archival Pigment Print_PLEXIGLAS. XT (UV100), 2008 © Chris Jordan

작품설명 :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주처럼 보이는 이 사진은 비효율적인 전기 사용으로 매분마다 미국에서 낭비되는 전기의 킬로와트 수와 동일한 **320,000개**의 백열전구로 만든 이미지다.

섹션 2) 멀고 가까운 숲

두 번째 섹션인 '멀고 가까운 숲'에서는 크리스 조던의 최근작인 슈마바(sumava) 숲의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작가는 이 숲에 머물며 카메라의 성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숲과 가깝게 재현하려고 심혈을 기울었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자신의 우주를 선보이는 듯해 이 전시장에서는 마치 깊은 숲 속을 산책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숲이 인류를 향한 오랜 메시지도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을에 가까이 공존하던 숲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멀고 가까운 숲'을 사유하게 한다.



슈마바 숲(Sumava) No 4,

140x206cm, 2018, Archival Pigment Print © Chris Jordan

섹션 3) 바다로부터 온 편지

인류의 시원이자 고향인 바다. 푸른 별 지구는 물의 행성이다. 어느 날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미드웨이'에서 크리스 조던은 바다가 숨기고 있었던 여러 생명체의 사연을 듣고 보게 된다. 알바트로스가 날지 못하고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생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고, 몰디브에서 만난 '파야'의 슬픔을 본다. 모든 생명의 고향인 바다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다. 건강하고 영감에 찬 바다생태계는 온 세계를 연결하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살림의 마법사이지만, 언제부터인가 깊은 슬픔으로 출렁인다.



미드웨이: 가이어의 메시지 CF000313(Midway: Message from the Gyre), 64x76cm, Archival Pigment Print_PLEXIGLAS. XT (UV100), 2009~, © Chris Jordan

어린 '알바트로스'의 배에서 마치 화석처럼 드러난 플라스틱 조각들. 언뜻 설치작품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진이다. 작가는 미드웨이 섬에 8년여간 머물며 알바트로스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를 목도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생명이 전하는 공포와 슬픔의 메시지는 참혹하기만 하다.

섹션 4)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에 보이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크리스 조던은 <숫자를 따라서 *Running the Numbers*> (2006년부터 현재)시리즈를 두 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인의 자화상*An American Self-Portraits*'이고, 두 번째는 '대중문화의 초상 *Portraits of Global mass culture)*'이다. 두 시리즈 모두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멀리서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살피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뤄진 현대소비 사회의 초상을 목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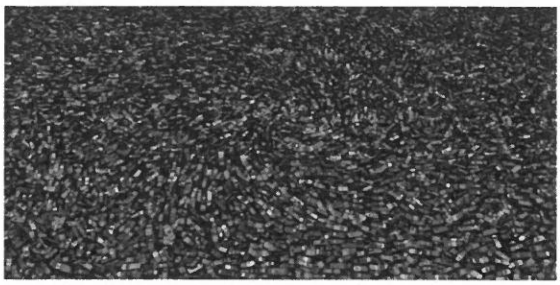
숫자를 따라서 II: 글로벌 대중문화의 초상(2009-현재) 비너스, 140x242cm, Archival Pigment Print _PLEXIGLAS. XT (UV100), 2011, © Chris Jordan

보티첼리의 대표작, <비너스의 탄생>이 10초 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비닐 봉지 **240,000개**로 부활하였다. 크리스 조던의 대표작인 <Running the Numbers> 두 번째 시리즈는 대중문화의 뚜렷한 아이콘이 모티브가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비너스가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소비재인 비닐 속에서 탄생한다.

섹션 5)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이 견딜 수 없을 때는 언제일까.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크리스 조던은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Intolerable Beauty)>시리즈에서 극도의 미니멀과 추상으로 형상화한다. 검은 덩이와 사각 박스들, 하얀 평면과 푸른 선분들로 이뤄진 이 사진들은 산업폐기물과 쓸모를 다한 물건들, 리싸이클링을 기다리는 자재들로 이뤄졌다. 현대문명의 부산물들인데, 언뜻 보면 현대미술의 한 지향이라 할만한 모노크롬 회화 같기도 하다. 단순하고 명백한 메시지, '아름다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핸드폰 (Cell Phones #2), Atlanta, 90x183cm, Archival Pigment Print , 2005, © Chris Jordan

크리스 조던은 2003년부터 2년간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Intolerable Beauty)>시리즈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의 영문타이틀이기도 한 'Intolerable Beauty'는 편리하고 쾌적한 현대의 문명 너머에 펼쳐지는 대량 소비의 폐단을 비유한다. 작가는 '아름다운' 것과 '견딜 수 없는' 것을 양립하여 추상을 만들었다.

섹션 6) 알바트로스의 꿈 (사진 및 다큐멘터리 영화)

<알바트로스의 꿈>은 크리스 조던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영화이다. 작가는 8년여 간 미드웨이 섬을 오가며 알바트로스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생의 전 과정을 살피게 된다.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를 찍는 일은 작가 스스로 동물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크리스 조던은 알바트로스의 생태를 극진한 기록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의 아름다움과 슬픈 현실을 극적인 영상으로 포착하였다. 마지막 섹션은 알바트로스 영화와 사진들로 구성하였다.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의 꿈> 상영시간 : 1시간 37분



알바트로스의 꿈(Albatross's Dream), CF13089, Archival Pigment Print_PLEXIGLAS. XT (UV100), 56x67cm 2012,

© Chris Jordan